



3대리구 성바울로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2022 서원만 베르나르도

#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온 누리의 임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2022. 11. 20. (다해) 제2349호

제1독서 2사무 5,1-3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2독서 콜로 1,12-20 복음환  
 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3,35L-43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  
 셧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스스로 자신도 못 지키는 왕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 여한준 롯젤로 신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여러 종류의 투자로 짧은 시간에 막대한 부를 창출한 젊은 사람들을 ‘영 앤 리치’라고 부릅니다. 단기간에 수백억의 자산가가 된 이들은 자신의 투자 방식과 마음가짐에 대한 자서전을 출간하며 제2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가 또 다른 영 앤 리치를 꿈꾸며 그들의 출판기념회에 참가하고, 강의를 들으려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왜 이렇게 투자에 열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으니까요. 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이제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돈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임금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네희가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피살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보호해 줄 힘세고 강한 왕이 필요했기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했던’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많은 돈을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센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사람들의 빈정거림, 조롱, 모독의 중심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왕이라고?”라는 비난이 가득합니다. 모름지기 왕이고 메시아라면 스스로 자신을 구할 힘이 있어야 남들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하고 남들을 구하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남들을 구하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 무능함 속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전능합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과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왕좌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필론**



## 요셉 (마태 1-2; 루카 2)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마태 1,18-2,23; 루카 2,1-52) 루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반면, 마태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마태오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의로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마태 1,19-20)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때부터 성가정이 헤로데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올 때까지,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떻게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지켜냈는지 소상히 전합니다. 예전에 어느 미술관에서 보았던 성화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펼쳐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감싸 보호하던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진정 요셉은 '성가정의 수호자'였습니다.

마태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일관되게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탄생만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마태 1,16)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마태오는 '하와에게서 태어날 메시아의 약속'(창세 3,15)과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날 임마누엘의 약속'(이사 7,14)이 오롯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세주의 오심으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 절정에 다다른 장엄한 이 순간, 요셉은 모든 영광을 성모님께 돌리고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리마저 성부 하느님께 고이 내어드린 채 겸손되어 가장 자리로 물러납니다. 갈등과 번민의 순간에 언제나 자기 생각과 결정보다 하느님의 뜻을 우선하여 따랐던 요셉의 의로운 삶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탁월한 모범입니다.

혼인하기도 전에 잉태한 여인 마리아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요셉은, 후일 간음한 여인을 보호하고 용서하신 아드님의 모습(요한 8,1-11)을 앞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을 때마다(마태 1,20-

25; 2,13-15.19-23)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바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셉은, 후일 아드님과 관련한 신비를 접할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신 성모님의 모습(루카 2,19.51)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리도 세 분이 서로를 닮을 수 있었던 것은, 세 분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뜻을 찾았고 그분을 성가정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겠지요.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고(마태 13,55), 그분 밑에서 자란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마르 6,3).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 일하셨을 터이지요.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 살며,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 가득한 눈빛을 마주한 채 복된 날들을 이어갔을 요셉의 삶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삶 가운데 조그마한 작업장에서 거친 노동을 이어가면서도, '주님의 수호자'로 살아가는 요셉 성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고작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나의 노동과 일상이 내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자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가운데는 성인도 있었고, 작은 믿음에 걸려 넘어진 죄인도 있었습니다. 임금 들뿐 아니라, 이방 여인에도 목수까지도 있었지요.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참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들판에 핀 한 송이 들꽃처럼,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나의 일상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즐겨 받으시는 하느님을 믿으며, 모두가 구원의 여정을 기쁨과 희망 속에 힘차게 이어가시길 빕니다. **필문**

# 모세의 소명과 사명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 반유닛 수녀

이집트의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에서 생활하던 모세는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어둡고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던 시기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나약하고 죄스러운 인간에게 두려움이지만 한편, 새로운 삶으로 불리는 은혜로운 사건이기도 하다.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꽃떨기 사건과 더불어 시작된다. (탈출 3,1-6) 하느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구원의지를 밝히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라는 사명을 제시하신다.(탈출 3,7-10)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께서 제시하는 사명을 무려 다섯 번이나 거절한다.(탈출 3,11.13; 4,1.10.13) 파라오의 궁궐에서 자라난 그는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는 말씀으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도구로 하여 부여된 사명을 성취해 나갈 것임을 밝히신다. 그러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찌하나?’(탈출 4,1)는 모세의 불신에 하느님은 친히 징표를 보여 주시고(탈출 4,2-9), 말썬씨가 없다고 핑계를 대는 그에게 아론을 대변자로 보내 주신다.(탈출 4,10-17) 이렇게 모세는 하느님의 예언자, 아론은 하느님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제가 되어 이집트 탈출의 인도자와 보증인이 된다. 이집트 탈출의 목적은 하느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실현과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탈출 3,12) 이제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섬기던 종살이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자유어로 건너가는 것이다. 섬김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존재론적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는 있는 나다.”라고 당신의 고유한 이름으로 보편적인 계시를 하신다.(탈출 3,14) 이 칭호는 일반적으로 ‘야훼’로 옮겨지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느님의 초월성과 “나는 ∞이다”라는 하느님의 내재성을 드러낸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신성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드러내셨다.

하느님의 소명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 백성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살피시는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연유한다.(탈출 3,7 참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느님을 향해 부단히 걸어가게 된다. **빛나**

## 말씀 맞히기 Q & A

1. 모세가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2.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3.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11월 25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3년

## 선교사들의 근황과 이동

1월 22일 수요일

그로장(Grosjean) 신부가 죽은 카즈나브(Cazenave) 신부의 후임으로 로마의 총 당가로 임명되었음을 알았다.

1월 23일 목요일

로베르 신부는 비에브르(Biéèvres)에 있다. 그는 2월 14일에 떠나는 우편선 편으로 출발할 생각이다.

1월 25일 토요일

보니파시오 신부가 베를린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는 서울에서부터 여행하는 데 정확하게 11일이 걸렸다.

1월 26일 일요일

라크루 신부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1월 27일 월요일

클렐프테르 신부가 부산에서 돌아왔는데, 비교적 일이 잘 되었다.

1월 28일 화요일

나는 생활비를 미리 지불하는 데 관한 제12호 회람을 발송했다.

1월 29일 수요일

미사 후, 클렐프테르 신부가 준비시킨 몇몇 일본인들에게 견진성사를 주었다. 클렐프테르 신부는 급행열차 편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2월 5일 수요일

금일자 <교구통신문>을 통해 나는 용산에서 복사한 라틴어의 로마식 발음에 관한 규정을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또한 그 규정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2월 9일 일요일

지난 밤은 아주 추웠다. 아침에는 온도계가 영하 14도를 가리켰다. 수녀원에 있는 소녀 16명의 첫 영성체가 있었다. 도쿄의 페랑(Ferrand, 夫) 신부가 홍콩으로부터 급행열차 편으로 도착했다. 리널 신부는 그의 문제로 내게 편지를 두 번 보냈었는데, 그를 나의 교구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이곳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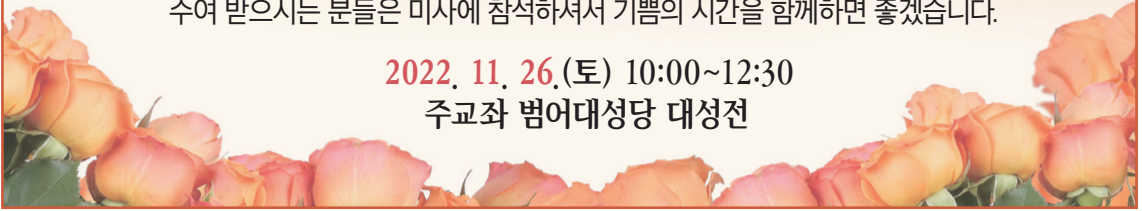


초대합니다

## 2021-2022년 **말씀의 해 감사미사**

2021년부터 2년간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에 따라 '말씀의 해'를 열심히 살아온 모든 교구민이 함께하는 감사미사를 아래와 같이 봉헌합니다. 특별히 교구장님의 축복장을 수여 받으시는 분들은 미사에 참석하셔서 기쁨의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2022. 11. 26.(토) 10:00~12:30**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 대구대교구 순교자 현양 기행문 공모전

**주제** | 친교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을 살아간 이들  
**방법** | 교구 내 성지순례 후 기행문 작성(A4 11포인트 2장 이상, 원고지 10매 이상)  
**제출** | 월간 <빛> 사무실 방문 및 이메일 제출(E-mail : dp21lightzine@dgca.kr)  
**마감** | 2022년 11월 30일 (수) **문의** | 053-255-8405(월간 빛)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방지 숲 조성 학교

**전입학설명회** | 2022.12.03(토) 14:00  
**겨울진학캠프** | 2023.01.14(토) ~ 15(주일)  
**대 상** | 현 초6, 중1  
**문 의** | 054-338-0530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 가까운 거리 걷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서로 토닥거려 주는 것...

##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21일(월) 11:0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1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1일(월) 11:00 계산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6일(토) 11:00 순례자성당

### 수도회 성소 | 피정

#### 돈보스코여자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svdb.creatorlink.net 참조

문의: (0507)1306-1505

####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된 교우

신청: 11.30(수)까지

문의: (010)4350-9652

#### 묵주기도 피정

일시: 매주 목요일 11:00~16:00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시 출발

문의: (054)954-3091

####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날짜: 12.16~18 / 12.31~1.2(한라산눈꽃

피정) / 1.7~9 / 1.13~15 / 1.28~30

문의: (02)773-1455 / (064)796-4182

####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일자: 12.16~18 / 1.5~7 / 1.27~29

연말연시피정: 12.30~1.2(눈꽃산행)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유형: 지적장애인 실비거주시설

대상: 만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으로

주간에 근로 및 재활훈련 참여 가능자

문의: 721-7090 / www.dalbo.or.kr

####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곡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봉사자 모집

분야: 치과의사, 한의사, 위생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 칠곡가톨릭병원 보험공단검진

6대 암검진(복구 유일 폐암검진)

및 종합검진

저선량 CT 추가 도입 / 당일촬영 가능

문의: 320-2061 (08:00~17:00)

####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 교구 외 | 기타 알림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할인: 성직, 수도자, 장애인(전화필수)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글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곽재혁신경과**  
DR. KWAK JAEHYUK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오)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 의 서재신 (베드로) · 장주현 (비버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국내  
국제

24년 전통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 운영  
대구신문 결혼 칼럼니스트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신사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비법 책 출간  
M. 010.6571.3385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동구 (마티아)

**명덕효요양병원**  
(부설) 백화원장레스토랑

인공신장투석전문요양병원

진료내용: 중풍, 치매, 당뇨, 말기암

병원장 변숙영 (세라피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7 (명덕역)  
TEL : 053)476-0000 | 010-7396-6525

**Sc 현대S라이프**

합병 2주년  
현대S라이프 매일상조

크루즈, 웨딩, 장례 상담  
상담전화 **1566-1678**

**파크골프**

국산채 20~30% 할인·혼마·수입채 초보자 무료레슨

전기 온수 매트 소형  
소금 열 좌욕기 가전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차관 1층 239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유가홍(루도비코) 신부  
1964년 11월 22일
- 이임춘(펠릭스) 신부  
1994년 11월 24일
- 이상호(베드로) 신부  
2011년 11월 26일

교구 | 대리구 알림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12.9(금) 10:00~12: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신자 임신부(신청필수)  
 진행: 모임 후 축복미사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청년들을 위한 1박2일 대림 피정

일시: 12.10(토)~11(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  
 대상: 고3~만 29세 / 마감: 11.30(수)  
 신청비: 3만원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바오로딸 12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12.10(토 15:00~16:30)  
 주제: 교황청 대사와 떠나는 바티칸 순례  
 강사: 이백만 대사(전)  
 사전예약: (010)6681-518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연필초상화, 프랑스자수, 우쿨렐레, 오카리나, 포슬린아트, 성가반주오르간, 서양화, 정리수납, 사군자문인화, 제대꽃꽂이, 난타,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1.21(월)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509-9748

모집: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중

바비의 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1.24(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제48회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일자: 11.30(수)~12.6(화)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문의: (010)9674-7563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험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 제공 / 연락처 필수

그레고리오성가 수강생(11기) 모집

개강 및 시간: 11.27(일) 14:00  
 장소: 공평동 톡쟁베네딕도 베네센터  
 내용: 이론(15주) 및 실습(30주)  
 등록: 11.24(목)까지  
 사전문의(필수): (010)2805-8504

대구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 모집

첫째주일: (010)3308-1004  
 첫째월요일: (010)4525-2467  
 넷째주일: (010)6549-1852  
 넷째월요일: (010)3532-7337  
 대상: 만 19~55세

2023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순번추첨결과: 11.21(월) 대구주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발송
- 주보광고접수: 11.24(목)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회의실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경일신경과·내과**  
 전문의 : 신경과 6인/내과 3인/영상의 1인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3T)MRI · CT · 공단검진(위/대장)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개원 37년  
**달성피부과**  
 ●아토피·어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살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N'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수)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눈성형 | 코성형 | 비강염 | 코성형 필러, 보톡스 | 안원센터빌딩 8층  
 진료문의. 216-7345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그루 행정사**  
 법인설립, 행정심판  
 토지보상, 민원대행  
 010-3534-1371  
 대표 이경배(요셉)

원름,투름 **용달이사**  
**한여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